

전문직 은퇴 불자들 자원봉사로 '제2 인생'

2002년 현재 65살 이상의 노령 인구는 대략 377만여 명, 전체 인구의 7.9%에 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사회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있다. 시간은 많고 마음은 젊고 아직도 의욕이 넘치는 '노인 아닌 노인'들이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전문직 은퇴자로 결성된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이 5월 14일 서울 지역 발대식을 가졌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로 봉사단 발족이 확산된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나가고 있는 전문직 은퇴자들 중에는 불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한결같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 노인들은 고리타분한 거라는 편견에 대해서도 단호히 'NO'.

은퇴 후 그동안 쌓아 온 경력과 전문성을 되살려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 동용화(79·외국어 자원봉사), 박상현(64·한문강의 봉사), 탁정숙(65·상담자원봉사) 씨를 만났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사진=고영매 기자 yogo@buddhapa.com



5월27일 이대 평생교육원에서 서울지역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참가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이란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생교육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축적한 퇴직자가 평생교육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불자는 '제2의 인생'을 자원봉사에 매진하기 위해 비자빔을 흘리고 있었다.

현재 '평생교육 자원봉사단'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400여 명의 전문직 퇴직자들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모집정원은 1500명.

이 번에 교육받는 전문직 퇴직자들

주부·장애인 대상 법률상담 등 활동

5월 27일에는 서울지역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교육이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 항공대학 비행원장을 마지막으로 47년간 봉직 생활을 마친 이종은 씨(73·성북구 상원동)와 교사로 정년퇴임한 권혁진 씨(71·중랑구 중곡동) 등이 들

은 각 지역 복지관 등에서 노인이나 가정주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컴퓨터교육, 무료 법률상담, 성폭력상담, 금연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평생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nclc.ked.re.kr)에서 얻을 수 있다.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사제를 발표하고 있는 동용화(맨 오른쪽) 씨.

"봉사활동으로 불심 깊어졌어요"

서울노인복지센터 외국인 봉사회 동용화 씨

미국 본토 발음을 구사하며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사제를 발표하는 동용화 씨(79·인천 부계2동). 매주 수요일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외국인봉사회'의 공부모임이 있는 날. 회원들이 동 씨 발표에 귀를 쫓긋 세우고 듣고 있다. 이곳 봉사회가 외부기관에 의뢰받아 번역한 서적만 영서 1권, 일서 3권, 원만한 수준의 대학 연구소 탐진다.

모임을 할 때마다 신선한 자극을 받아 오히려 삶의 활력으로 되돌아 온답니다.

95년 미8군 501 군사정보대 인천지구대를 마지막으로 퇴직한 동 씨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지난 해 9월부터 조계사 외국인 안내소 자원봉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동 씨는 2002년일 월드컵 자원봉사

조계사·동대문 등서 외국인 안내

40명의 '외국어 봉사회' 회원들의 평균 나이는 73세, 막내 회원 나이는 61세다. 이곳 봉사회에서 '젊은이' 소리를 듣는 동 씨는 사례발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영어사전을 끼고 다닌다. 그것도 모자라 한국불교 문화 서적까지 일일이 뒤지기도 한다.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외국어 봉사활동 자체를 망칠 수 있거든요. 회원들의 외국어 구사실력은 수준급입니다.

자 선발 시험에 응시, 당당히 합격해 동대문관광안내소에서 매주 화요일 5시간씩 봉역봉사활동을 하고, 또 목요일에는 4시간씩 마포구청 외국인 안내소에도 나가고 있다.

'외국어 자원봉사 활동으로 불심이 깊어졌다'는 동 씨는 또 다른 원을 세웠다. 조계사 외국인 안내봉사 활동만큼은 기력이 있는 한 봉사할 각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가진 능력 녹슬기전 회향"

한문·서예 강의하는 박상현 씨

나이 64세, 전직 구청 재무국장, 은평구청 불자회 '불심회' 회장 3년간 역임, <소학필사교본> 등 집필 저서만 총 10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서당교실 4년 봉사, 서예대전 입상만 9번 등등.

박상현 씨, 그의 이력에서 왕성한 활동력을 짐작할 수 있다. 1999년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박 씨, 퇴직 후 곧바로 한문과 서예를 가르치는

은평노인복지관서 화요일마다 봉사

데로 뛰어들었다. 96년 재직시 구청 직원들에게 한자교양교육을 담당했던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계기가 됐다. 이후 박 씨는 매주 화요일 1시부터 서울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4년째 한문강의와 서예교육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제가 가진 능력이 더 녹슬기 전에 회향해야겠지요. 남에게 받았던 은혜를 되갚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박 씨에 강사 박상현(왼쪽에서 두번째) 씨가 습작 시범을 보이자, 수강생들이 일제히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말벗돼 스스로 문제 해결하게"

노인복지관 상담자원봉사 탁정숙 씨

"여보세요. 노인복지관 상담실입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고 있으면, 친절히 말씀해 보세요."

4월 강남 서초구 노인종합사회복지관 3층 상담실.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무섭게 수화기가 노보살의 손에 들려진다. 문틈 사이를 넘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상담이 진행될수록 상담자의 목소리에서 강한 카리스마가 풍긴다.

래도 탁 씨는 언제나 싱글벙글이다.

"자원봉사라니? 저는 다만 자원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태여 '봉사'라고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아요.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1958년 현 서울교대 전신인 서울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교편을 잡았던 탁 씨가 상담활동

92년부터 서울 자비의전화 상담 맡아

'말벗지기' 탁정숙 씨(65·서초구 방배동).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엔 이곳 복지관 상담실에 출근을 한다. 6시간 동안 전화상담에 매달린다 보면, '파김치'가 되기 일쑤. 게다가 전남, 서울 자비의 전화'가 있는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오후5시부터 4시간 동안 상담을 하다보니,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거기를 벌써 10년째, 그

에 뛰어들은 것은 지난 83년부터. 평소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던 탁 씨는 서울 '여성의 전화'에서 기초상담교육을 받고, 92년부터 서울 '자비의 전화' 상담을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매일 새벽 5시엔 108배 정진으로 하루를 여는 박씨. 한 배 한 배 하면서 박씨는 '모든 문제는 늘 자기에게 있다'고 참회한다.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탁정숙 씨는 전직 교사 출신이다.

육임래정비법

六壬來情秘法

파장용 1,300,000원 시간으로 판단하는 역술인 필수 필독서! 휴대용 1,500,000원

- 비인더 체크식으로 되어 있어 하루치책 꺼내 보게 됩니다 -

음양오행을 몰라도 역술공부가 부족해도 이 '육임래정비법'만 있으면 그 고민은 이제부터 해결 됩니다.

■ 육임은 시간으로 보는 고등역술서,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사람의 비밀 한 속사정을 먼저 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비서(秘書)입니다.

■ 출생년월일시를 물어서는 아니라고 찾아온 그날 그 시간, 전화온 그날 그 시간, 가서 만난 그날 그 시간만 보면 이미 그 해당 시간 칸마다 상대방의 비밀한 속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 기서(奇書)인 것입니다. 먼저 할말은 앞면에, 묻는 대답은 뒷면에 적혀있습니다.

■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명이 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서 만나더라도 각기 다르게 말해 줄 수 있게끔 쓰여 있어서 편리하고 신통합니다.

■ 이처럼 핵심사항들에 대해 들어서마자, 전화받자마자, 가서 만나자마자 즉시 말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기분이 제압당하게 되고 맙니다.

■ 이 외에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 승진, 구직, 구직, 시험, 혼사,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해매, 도난, 가출, 대인, 방문, 채용, 투자, 승부, 가격, 정략, 모자, 기후, 시향 등을 밝혀 놓았습니다.

■ 육임은 참으로 신통하여 역술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고 마는데, 이처럼 쉽게 체크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년여에 걸쳐 그 정확성이 검증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활인전문 천역사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 02-993-8680, 02-996-3335

부산지사 : 051-851-2349 (당일배달 : 정현철)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경관 도서출판 부문

제 2차 육임강의 접수 중

매월 3개월 완성 1,500,000원(초사육임강의목과제포함)

육임비디오 강의 접수 중

총 28개 1,200,000만원(초사육임강의목 포함)

'호사육임강의' 300,000만원 출시!